

민 정 실	음 진 천	<h1>BUDDHANARA</h1>
-------------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교리 탐구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사경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말 많이 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진실로 지혜 있다 하겠네.

A man is not called wise because he talks and talks again; but if he is peaceful, loving and fearless then he is in truth called wis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 수행의식 설문 보고서; 크게 젊어진 불자... ‘할머니 종교’는 옛말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46개 전문교육기관과 포교사를 대상으로 수행의식실태를 조사해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신도 수행의식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도들의 수행에 대한 의식이 일반적 통념과 다르게 나타났다. ‘불교신도는 노년층 여성이 주종을 이룬다’ ‘불자들은 기도와 기복을 주로 하며, 수행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는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응답자의 96.1%에 달하는 정기적인 수행을 하고 있으며, 참선을 가장 하고 싶은 수행법으로 꼽고 있다는 점. 하지만 사찰에서는 주로 염불이나 참회기도를 통해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행지도 변화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 있다.

96%가 ‘정기적인 수행’ 실천, 신도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아

보고서는 또한 변화된 불자들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신도들이 가장 자주 실천하는 수행법은 참선이 17.4%를 차지한 반면 108배, 3,000배 등 참회기도가 32.3%, 염불수행이 26.9%에 달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참선(43.4%)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지도받고 싶은 수행법이 참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9.2%에 달했다. 반면 염불수행을 하는 비율은 49.6%에 달했지만, 중요한 수행법이라는 인식은 9.8%에 그쳤다. 수행을 일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행공간(5.4%)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61.9%)와 사찰의 상설 수행프로그램 운영(22.4%)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된다. 신도들이 수행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 지도자가 필요하며, 수행공간 부족은 수행 저해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선의 방법으로는 간화선(17.0%)보다 염불선(21.8%)과 단전호흡(19.6%)이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불자들에게 간화선이 어려운 수행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까닭으로 보여진다.

응답자의 분포도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남성의 비율이 38.6%에 달했으며, 전체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 불교가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젊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40대가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주부의 비율이 40.3%에 달했다. 응답자의 평균 신행경력도 남성이 13.91년, 여성이 12.29년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의외의 결과로 분석된다. 수행지속기간은 신행경력 4년 이하의 경우 1.91년이었으며, 5~9년이 3.46년, 10~19년이 5.58년, 20년 이상이 9.83년으로 나타나 단기간적 수행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을 하고 있는 조사됐다. 한편 타종교 경험이 전체의 71.7%에 달한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의 선택에 비교적 자유로운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 경험율이 전체 응답자의 68.6%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도들의 참선수행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아직은 염불이나 참회기도가 신행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행법을 택하는 기준이 주변의 권유에 상당히 좌우됨을 보여준다. 대부분 불자들이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지 못한 채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분석은 사회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10.0을 이용, 중앙승가대학교 김웅철 교수가 실시했다.

-통념 뒤집은 신도구성 비율

이번 조사에서는 또 신도 구성비율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신도 중 1/3이 남성이며, 30 40대 불자들이 전체 신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신행 이력이 여성보다 남성이 1.7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불교 신도의 다수를 노년층 여성으로 분석했던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것으로, 포교대상과 교육방향 설정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교대학 다니는 신도의 30% 이상이 남성...; 신행이력도 남성이 길어

포교원이 실시한 <신도 수행의식 설문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불교대학을 운영중인 몇몇 사찰에 대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런 현상이 매우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17년제 불교대학을 운영중인 모 사찰의 경우 전체 신도 2500여명 중 노인층의 비율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며 ‘거사(중년층 남성)들의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불교교육기관을 운영중인 서울 조계사, 봉은사의 경우도 중년층 남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은사 관계자는 “몇년 사이에 거사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60 대 이상의 여성 불자가 많다는 것은 노인층이 사찰을 찾는 횟수가 많기 때문이지, 실제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음력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각종 법회 참석자의 경우 여성 노인이 주를 이루지만, 실제 등록 인원을 조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도들의 구성비율이 변화했다는 결과에 따라 신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포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젊은층에 대한 ‘숫자 늘리기식’ 포교방안이 주종을 이뤘다면, 향후 30 40 대 층을 아우르는 교육과 신행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 조계사 유지호 종무실장은 “나이와 성별 비율의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법회 방식과 신행지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부처님의 가르침 : 진리에 귀의한 사람의 자세

부처님이 사화외도(事火外道)였던 우루빈라 가섭 3 형제를 교화한 뒤 1 천명으로 늘어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국으로 향할 때의 일이다. 마가다의 빈비사라왕은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사군(四軍 : 象軍 馬軍 車軍 步軍)을 이끌고 마중을 나왔다.

부처님은 멀리서 빈비사라왕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군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자 짐짓 길을 피해 니그로다 나무 밑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다. 이를 본 왕은 수레에서 내려 사군을 물리치고 걸어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고 자신을 소개한 뒤 한쪽 곁에 좌정했다.

부처님 뒤에는 며칠 전 교화된 우루빈라 가섭도 있었다. 그는 많은 무리를 이끈 도사로서 이미 집착이 없는 진인이 되어 있었다. 마가다국 사람들은 우루빈라 가섭을 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

‘부처님이 우루빈라 가섭을 따라 수행을 하는가, 우루빈라 가섭이 부처님을 따라 수행을 하는가?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가?’

불교 귀의한 가섭 3 형제 처럼 수행자 공양하는 것은 큰 행복

우루빈라 가섭은 마가다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자신이 왜 불을 섬기는 외도의 길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계승으로 말했다.

“옛날 아무 것도 몰랐을 때에는 / 해탈을 위하여 불을 섬겼었네. / 나이는 늙었어도 눈 뜬 장님처럼 / 사특하여 참 이치를 보지 못했네. // 내 이제 제일의 자취를 보매 / 위없는 용이 말하는 바는 / 다함이 없어 괴로움 벗어나네. / 그것을 보자 나고 죽음이 다했네.”

우루빈라 가섭의 계승을 들은 마가다 사람들은 참 스승이 누구지 알게 되었다. 때가 무르익은 것을 아신 부처님은 그들을 위해 보시(布施) 지계(持戒) 생천(生天)의 차례설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 사성제를 설했다. 이어 왕을 위하여 오온무상과 연기법을 설하시니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법의 눈을 뜨고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왕은 삼보에 귀의하고 우바새가 될 것을 맹세했다.

-중아함 11 권 62 경 <빈비사라왕불영경(頻毘娑羅王佛影經)> -

이 경은 불을 섬기는 외도(배화교)였던 우루빈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삼형제를 교화한 뒤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묘사한 흥미로운 기록이다. 자료에 의하면 가섭삼형제는 무려 1000 여명의 제자를 거느린 큰 세력의 수행자집단이였다. 이들이 한꺼번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큰 화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하지 않았다.

이제 겨우 35 세밖에 안된 젊은 싯달타에게 여러 사람의 존경받던 나이 많은 수행자가 귀투(歸投)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었다. 부처님께 귀의한 우루빈라 가섭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자 그들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진리의 세계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 경전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출가자에게 합장예배하는 것을 거북해하는 일부 잘난 사람들의 꼴불견스러운 행태다. 가사 입은 스님에게 합장하는 것은 절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아만을 꺾고 진리에 귀의하는 표시다. 여기에서는 세속의 나이가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 학식이 깊고 얕음이 문제되지 않는다. 누가 더 자기를 낮춰 진리의 세계에 가까이 갔느냐가 유일한 잣대이다. 이때 자존심이란 도리어 무익한 것일 뿐이다. 수행자란 온몸을 진리의 세계에 던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에게 귀의하고 공양하는 것은 속인으로서의 큰 행복이다. 그 행복을 왜 버리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홍사성/불교평론 편집위원

불교 용어 공부: 참회(懺悔) - 잘못 숨김없이 공개하고 삼보에 용서 구하는 것

자기가 지은 잘못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숨김없이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懺)이라 한다. 그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이나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을 회(悔)라 한다. 의정스님이 지은 <유부비나야> 권 15의 주석서에는 참회(懺悔)를 설명하면서 “참(懺)은 용서를 비는 것이며, 회(悔)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과를 고백하고 죄를 제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참회는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자가 지녀야 할 조건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참회하게 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회의 기회를 마련했다.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이다.

‘참(懺)’은 산스크리트의 ‘크샤마(ksama)’의 음역이며, 회(悔)는 그 뜻을 번역한 것이다. 모두 뉘우친다는 뜻이다. 참(懺)은 타인에게 자기 죄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엄밀히 따지면 실수를 뉘우치는 ‘회(悔)’와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한다. 현재는 ‘참’과 ‘회’가 동일시되어서 ‘참회’라는 말로 쓰여지게 됐다.

포살은 보름에 한 번 계본(戒本)을 의위 죄과의 수를 세고, 자기가 범한 죄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다. 자자는 안거(安居) 동안의 마지막 날에 스님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각자 참회 고백하는 방법이다.

참회는 마음속으로부터 그 죄를 뉘우치는 일과, 자기의 죄를 조금도 감추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대승불교에서는 불상 앞에서 자기 죄를 참회하고 죄를 멸하는 수행이 많다. 이것을 ‘참회멸죄(懺悔滅罪)’ 또는 ‘회과(悔過)’라 칭한다.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회과하는 ‘아미타 회과’, 미륵불(彌勒佛)에 회과하는 ‘미륵 회과’, <법화경>에 의거 참회하는 ‘법화 참법(法華懺法)’ 등이 행해진다.

법회소식 NEWS

- 현재 사찰에서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서 연등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등 불사에 동참하는 뜻깊은 일은 신도님들 각자가 신심을 다질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한국 불교 일천 육백년을 전수해 내려온 전통 연등을 만들어 보는 연등 불사는 매주 정기 법회 후 점심 공양후에 있습니다. 모두들 동참해 주십시오.
- 3월 3 제주 일요일은 전법기도 및 불교 교리를 발표, 연구, 토론하는 법회날 입니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님들은 각자가 불교 교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십시오. 이달 주제 발표는 회장 흥법 문정모 거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 3월은 홀수 달이므로 4 제주는 사경법회가 있습니다. 짝수 달은 108 대참회 홀수 달은 사경법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불국사에서 모범적인 수행 생활을 하셨던 임현철 거사님은 동부 메인랜드로 백송 오영주 거사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신 백송 오영주 거사님은 현재 불국회에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두분과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을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